나눔·평화…시민 참여 늘린다

5·18 28주년 내달 1일부터 한달간 전국서 60여개 행사

5·18 민중항쟁 28주년 기념행사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7일 5·18 민중항쟁 28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에 따르면 행사위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광주·전남, 서울 등 전국에서 정신계승, 문화·예술, 학술·교육, 국제·타지역 연대 등 10여개 분야 60여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위는 오는 18일 28주년 기념행사 슬로건 공모작을 선정·발표한 뒤 행사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행사는 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실천했던 나눔과 대동정신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행사를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첫 날인 내달 1일 국립 5·18 민주묘지 인근 도로에는 '광주, 사발통문 날리다'라는 주제로 '만장 깃발전'이 열리고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또 17일에는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5·18 아름다운 장터'가 개설된다. 올해 첫 시도되는 이 행사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열리며, 수익금은 이주노동자 등에게 전달된다.

17일~18일에는 옛 전남도청에서 '도청 하룻밤 체험'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80년 오월 당시 시민군들의 심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으로 행사위는 심야영화 상영과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시민을 초청해 '대화의 시간'도 갖도록 할 계획이다.

16일~19일 5·18 기념재단에서는 5·18 기념행사 중 대표적 국제행사로 자리 잡은 '광주국제평화포럼'와 '5·18과 한국의 민주주의' 학술대회가 열리며, 6일~9일까지는 '소외계층 어린이와 함께하는 5월 어린이 학교'가 열린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5·18 제 28주년 주요 행사 일정표

일시	장소	행사명
5월9~27일	망월동	만장깃발전
15~16일	옛 전남도청	5월과 함께하는 대중강연회 및 학술대회 도청 하룻밤 체험 행사
17일	금남로 금남로·망월동 옛 도청·망월동	5·18 민중항쟁 28주년 기념 전야제 주먹밥 나누기 및 아름다운 나눔장터 오월 평화로 가는 자전거 순례
18일	5·18 민주묘지	5·18 민중행사 28주년 기념식 엄마와 함께하는 5·18
23~25일	5·18 기념공원	2008 난장 人, Free
24일	금남로	5·18 청소년 문화제 RED-FESTA

■ '2008 광주 인권상' 무니르 말리크씨

파키스탄 인권변호사…독재 투쟁 30년

17일 '2008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무니르 말리크(57·Muneer A.Malik)씨는 파키스탄의 인권변호사이자 민주·인권운동가이다.

지난 1950년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말리크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귀국해 민주·인권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지역 변호사협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1980년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아울 하크 장군의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다 반정부 활동 혐의로 중앙교도소에 투옥됐으나 국제사회의 거센 압력에 힘입어 곧바로 석방됐다. 이후 홍콩 아시아 인권위원회(AHRC) 발족 선언문 초안 작성을 비롯한 파키스탄 인권위위원회 업무,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의 독재정권 저항운동, 대법원장 복권 운동 등을 진두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고 사무실을 빼앗기는 등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탄압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난 30여 년 동안 파키스탄의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신장, 사법권 독립, 언론자유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편 밀라크씨는 지난 2006년 파키스탄 인권위원회 '도랍 파텔 인권상'과 아시아 인권위원회의 '인권 옹호상' 등을 수상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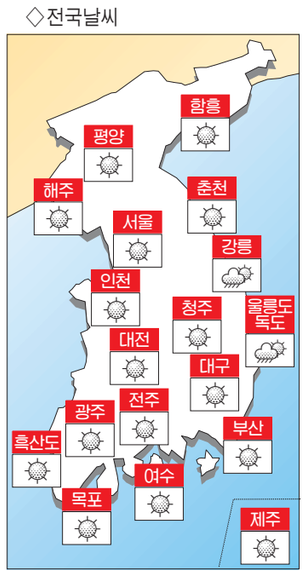
초여름 더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4월 18일 (음 3월 13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맑음	10~24℃
목 포	맑음	10~21℃
여 수	맑음	11~19℃
완 도	맑음	9~22℃
구 례	맑음	7~24℃
해 남	맑음	7~23℃
장 흥	맑음	7~23℃
고 흥	맑음	7~21℃
순 천	맑음	7~24℃
영 광	맑음	7~22℃
진 도	맑음	7~24℃
전 주	맑음	9~24℃
남 원	맑음	7~24℃
흑산도	맑음	8~14℃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0:49 13:04 썰물 06:05 18:22
여 수 밀물 07:55 20:19 썰물 01:44 13:57

▲해뜸 05:57 ▲해짐 19:07 ▲달뜸 17:14 ▲달짐 04:3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날 씨						
최저/최고	10/26	10/25	11/23	12/19	11/20	10/19

"33년 공직 네트워크 살려 산업인재 배출"

장병완 호남대 총장 취임 회견

참여정부 마지막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56) 전 장관이 호남대 10대 총장으로 취임, 지난 16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취임식은 18일 오전 11시 호남대 광산캠퍼스 문화체육관에서 열린다.

장 총장은 17일 대학본부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생활 33년 동안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호남대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꼽히는 인재육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총장과의 일문일답.

―교육과는 무관한 예산 관련 정부부처에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대학 총장을 맡게 됐다. 총장 제의를 수락한 배경은.

▲장관을 지낸 뒤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명예로운 것이 대학 총장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었다. 또한 기획예산처 일이 예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 업무를 조율하므로 (교육 분야가) 그리 낯선 것만은 아니다. 선친께서 40년 넘게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교육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총장은 경영자이지,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호남대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중앙에서 쌓아온 경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고향에서 후학 양성을 할 수 있어 기쁘다.

―지방 대학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이를 타계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 대학 뿐 아니라 국내 모든 대학이 위기인 게 사실이다. 지방 대학 관계자들이 지역 산업과 매끄럽게 연계하지 못했다는 점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기아차가 광주의 최대 산업인데 광주·전남의 대학 중 특성화된 자동차학과를 보유한 대학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광주·전남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재를 육성, 호남대의 미래 비전을 가꾸겠다.

―수도권에서의 대학 설립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호남대는 수년 전 천안캠퍼스 유치를 추진한 적이 있는데, 다시 수도권에 진출할 수도 있나.

▲아직 대학의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호남대의 수도권 진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더 이상 외형의 확대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과도 같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교 졸업 이후 거의 40년 만에 광주 생활을 해야 하는데, 부담은 없나.

▲집안의 8대 종손이고, 부모님이 화정동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광주를 먼 곳이라고 느낀 적은 없었다. 중앙 부처에 있으면서 광주의 여러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광주·전남과 괴리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호남대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곡성 출신인 장 총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1975년 제17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제7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 총학 총장실 점거

등록금 인상 반대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17일 "학교 측이 요구한 등록금 7%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총장실을 점거했다. 학생 80여명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곧바로 총장실로 이동했다.

최주형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지속적인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요구를 묵살해 지난 2일 학생총회 때 집결된 학생들의 뜻을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총장실 점거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총장과 면담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총장실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전남대 총학생회가 '등록금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대학본부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전면 중단 ▲국립대 법인화 중단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 문제 근본적 해결 ▲학생들의 총장 선출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조선대 총학생회는 17일 오후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학교 측의 등록금 7%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0교시 수업·우열반 편성 안한다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규제 합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 정규수업 전 이루어지는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교육청 차원에서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들은 1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 추진계획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의 경우 규제하는 쪽으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장을 맡고있는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에 대해 대체로 규제하는 쪽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각 시·도가 오늘의 합의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그러나 최종 결정은 각 시·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내릴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학교 자율화 세부 규칙을 만들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도록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 부교육감은 대책회의에 오기 전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사설모의고사 시행 ▲사설학원의 방과후 학교 운영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외 교과수업 등 5가지에 대해 의견을 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